



e커머스
뷰티·액세서리
물량 펀다
L1



Life

대원제약
매출 신기록
연구개발 속도
L2



지역인재 키우고, 스타트업 지원...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르노코리아

한동안 신차 부재로 판매 부진에 시달렸던 르노코리아가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새로운 혁신과 전략 변화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 사회와 호흡한 덕분이다. 특히 부산 공장 투자 확대 및 청년 지원을 통해 얼어붙은 청년 취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국내 대학,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미래 인재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역 사회 긴밀한 협력...경제 활성화·고용 창출

부산 지역 내 주요 제조기업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3월 부산시와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존 내연차 중심의 생산 체계에서 하이브리드 등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이를 통해 부산 지역 내 청년 고용 및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2028년까지 부산공장에 투자 비용만 1180억원, 200명의 신규 인력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차세대 전기차 모델의 개발 및 생산까지 확정되면 2027년까지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협약을 통해 직접 생산 유발 효과 12조원, 간접 생산 유발 효과 30조원, 간접 고용 효과 9만명 등 대규모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당시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부산에 위치한 경쟁력 있는 차량 부품 업체와 우수한 연구개발(R&D) 기반 시설은 부산에 신차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며 "르노 본사와 차세대 전기차 모델의 부산공장 생산을 위한 협상이 성공하면 '오로라 프로젝트' 7000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총 1조50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르노코리아는 지역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23년 부산시 및 부울경지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 등 지역 기관과 '부산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동아대학교와 미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부산 지역 인재 육성에 필요한 상호지원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해당 협약을 통해 르노코리아와 동아대는 ▲체험형 현장실습(인턴)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시행 ▲협약기관 간 공동 정책 연구, 정보공유, 인재양성 상호지원 체계



2 부산대학교-르노코리아 산학협력

시: 2024.11.19. (화) 오후 4시 30분 장소: 부산대학교 본부



1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전경. 2 르노코리아 제조본부 이해진 본부장(오른쪽)과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3 르노코리아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옹진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 피치 데이' 최종 후보에 오른 스타트업들에 대한 기술 평가와 시상을 진행했다.



3 르노코리아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옹진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 피치 데이' 최종 후보에 오른 스타트업들에 대한 기술 평가와 시상을 진행했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 생산기지 구축... 투자 늘려 차세대 전기차 모델 개발·생산 계획 직·간접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부산대·동아대와 인재양성 업무협약 산학협력 협약 맺고 상호지원체계 구축

인프라 부족한 곳에 임대 차량 지원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술협업 기회

구축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등의 지원 및 협동 등 적극적인 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대학교와 '미래 기술 인재 양성 및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부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교통취약지역 근무 청년에 차량 지원

르노코리아는 부산 내 교통취약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무 청년 대상으로 운영되는 부산청춘기쁨카 지원 사업에 '뉴 르노 아르카나 E-Tech 하이브리드'를 지원하며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산청춘기쁨카 지원 사업은 도시철도 노선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부산시 강서구 및 기장군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의 통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2년간 차량과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년 이내에 부산시 강서구와 기장군 소재의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만 21세 이상 39세 이하 부산시 거주 청년이다.

실제 이용자 조사 결과,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며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지난 2020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청춘기쁨카 지원사업 선정자 19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과 조사에 따르면 청춘기쁨카가 재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6%에 달했으며 주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약 82%로 나타났다.

또 선정 인원 중 약 90%가 현재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6~29세가 약 52%, 지역별로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서부산권 지역 재직자가 약 80%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역량 총동원해 유망 스타트업 육성

르노코리아는 르노그룹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2년간 르노그룹,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스타트업 오픈스테이지'를 개최하고, 미래차 기술 협업을 위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힘쓰고 있다.

실제 르노코리아는 지난 2023년 개최된 스타트업 오픈스테이지에서 우수스타트업

으로 선정된 '드림에이스'와 기술 협업을 진행하며 신차 그랑 콜레오스에 탑재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함께 개발한 바 있다. 우수 스타트업과 협업으로 개발된 그랑 콜레오스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 UI와 혁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기능으로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2024 스타트업 오픈스테이지는 르노코리아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하는 국내 트랙, 르노 그룹과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하는 글로벌 트랙으로 진행됐다.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 카 익스피리언스', 게임 콘텐츠 또는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인 카 게이밍' 2개 분야로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협업 계약을 통해 르노코리아의 차기 신차에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선정 기업은 기술 검증(PoC) 및 르노코리아 유관 부서와 비즈니스 미팅, 현업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르노코리아가 준비 중인 미래차에 적용할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발굴하고 협업을 진행하며 직간접적 고용 창출 및 경제 효과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단 123명 선수촌 입촌
▲7년 만에 다시 호흡 맞춘 서승재-김원호,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 /사진 뉴시스

▲유승민, 선수 바꿔치기 의혹 제기엔 분개...“강태선·강신욱 후보 사과해야”
▲펜싱 박상원, 튀니스 그랑프리서 국제대회 개인전 첫 금메달

▲박항서 감독, 전북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전북 발전에 노력”
▲“오타니 이길 사람은 안우진뿐”...류현진-김광현이 꼽은 투수, 日도 주목